

##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Received: October 29, 2021  
Revised: November 26,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이수란<sup>1</sup>, 배유진<sup>2</sup>, 양수진<sup>3</sup>, 기쁘다<sup>4</sup>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학생<sup>2</sup>,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sup>3</sup>,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조교수<sup>4</sup>

교신저자: 기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E-MAIL:  
ppudahki@knu.ac.kr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K-SSCCS)

Suran Lee<sup>1</sup>, Youjin Bae<sup>2</sup>, Sujin Yang<sup>3</sup>, Ppudah Ki<sup>4</sup>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sup>3</sup>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4</sup>

© Copyright 2021.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A2A03046090).

###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소명 척도를 한국 맥락에 맞게 보완하고 타당화하여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됨의 의미에 있어 문화차가 존재함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개발된 부모소명 척도(SSCCS) 11문항에 부모소명의 주요 주제 관련 문항 및 한국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여 요인분석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 SSCCS 원척도 11문항과 새롭게 개발한 문항 15개를 포함한 26개 예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 요인(목적/정체성, 희생/헌신, 열정/성장, 의식/집중) 19문항이 도출되었다(N = 479).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18문항을 확정하고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N = 628). 또한,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통해 부모소명이 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양육 및 개인의 적응을 나타내는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개발된 척도는 기존 척도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함과 동시에 희생/헌신이라는 한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수렴, 변별, 증분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모소명, 소명, 부모됨, 양육,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모됨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은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부모는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모(母)가 양육을 전담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Hrды, 2010).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강조되면서 자녀의 출산 역시 선택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현대적 관점에서는 부모가 되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더이상 당연한 과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김한곤, 2014; 남정은, 정정희, 2012).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 조사(이소영 등, 2018) 결과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2015년 응답과 비교했을 때, 10.4% 감소한 수치였다. 또한 '딥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 '싱크족(SINK: Single Income No Kids)', '싱커족(THINKERS: Two Healthy Income, No Kids, Early Retirement)' 등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등장하고 이를 지칭하는 신조어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가에 따라 부모가 되고자 하는 동기 및 노력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부모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지는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너무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섣뚱 출산을 선택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 부모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무이며 이를 통해

자기 삶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 믿는다면 부모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실제로 의도적 무자녀가정의 부부는 개인적인 행복 추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존중, 자기 일에 대한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반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문무경 등, 2016). 이와 같이 부모의 인식은 개인적 차이를 넘어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기에(문무경 등, 2016) 부모들이 갖는 부모됨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 연구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부모로서의 태도와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김두섭 등, 2007; Hummen, 2003; Ryff et al., 1994). 학자에 따라 부모가 된다는 것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의미,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집중하거나(Aries, 2003), 임신 및 출산 등 특정 시기에 따른 태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고(김혜라, 2011), 어떤 양육방식을 사용하는지 혹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이란 무엇인지 밝히는 노력(Aunola & Nurmi, 2005; 길혜지, 황정원, 2017; 김영희, 김신정, 2008)을 통해 부모로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부모역할 수행의 동기라 할 수 있는 부모됨(parenthood)의 태도(유안진, 김연진, 1997),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자녀가치(윤미라, 2006)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저마다의 태도를 소명(calling)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부모

소명(calling in childrearing)을 연구하기 시작했다(Coulson, 2011). 심리학에서 소명은 주로 직업 소명(career calling)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직업소명이 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면 부모소명은 부모됨, 양육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다. 부모소명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라 할 수 있는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직업 혹은 진로를 소명(calling)으로 여기는 것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는 종교적 개념으로 다루어졌다(Weber, 1958). 소명 개념의 출발은 신의 부르심, 종교적 직책 등이었으나, 현대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종교적 의미로만 제한하지 않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식과 태도로 정의한다(Dik & Shimizu, 2019; Thompson & Bunderson, 2019).

소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이행하고 달성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강한 신념이며, 희생이 늘 동반되지 않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Coulson et al., 2013, p.6). 직업소명이 높은 사람은 일을 통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Dik & Duffy, 2009; Dobrow, 2006). 이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직무에 몰입하고 이직을 덜 하는 등 직업 장면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et al., 2014; Harzer & Ruch, 2012; Wrzesniewski et al., 1997). 학자들은 소명이 갖는 속성이 Rogers(1977)의 자기실현 경향성, Maslow(1968)의 자아실현의 욕구와 맞닿아 있으며(Baumeister,

1991; Coulson et al., 2012a), 기여나 목적, 의미와 성장에 기반한 긍정적인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Seligman, 2002). 소명의 개념이 부모의 영역으로 확장될 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소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명이 비단 직업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非)직업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Dik & Duffy, 2009; Elangovan et al., 2010). 또한, 전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소명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Satir(1972, 1976)는 자녀 양육이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최적의 결과를 안겨주는 고귀하고 의미있는 일이며, 정체성, 열정, 희생, 의미있는 기여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Baumeister(1991)는 전업주부 혹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열정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매우 고귀한 소명의 영역이라고 설명했으며, Rossi(1968)는 양육이라는 임무에 대해 한번 시작하면 변경하기 쉽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부모됨, 양육의 특성이 소명 개념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기에, Coulson과 동료들은(2012a) 소명의식이 양육의 맥락에서도 타당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모들은 소명의식이 양육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내용분석 결과, 크게 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소명 수준이 높다는 것은 부모 역할을 자기 삶과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두고(정체성: identity),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활동이나 기회 혹은 즉각적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기도 한다(희생: sacrifice).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자신과 자녀, 사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민으며(의미있는 공헌: meaningful contribution), 좋은 부모가 되는 데에 열성을 보이고(열정: passion),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운명: need/destiny).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은 순간에도 자녀를 생각하거나 자녀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항상 생각함: always on the mind/engulfs the consciousness).

연구자들은 질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였다(Coulson et al., 2012b). 위의 여섯 주제를 반영한 63개의 문항을 개발한 후, 문항검토 및 요인분석 절차를 거쳐 삶의 목적(life purpose), 인식(awareness), 열정(passion)이라는 3개 요인,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소명 척도(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를 확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부모소명은 삶 만족, 긍정 정서, 삶의 의미(존재), 부모로서의 만족감, 권위적(authoritative) 양육태도 등 긍정적인 변인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소명은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개념으로 아직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맥락에 맞는 부모소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필수적이다. 부모역할 및 부모에 대한 기대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Roskam, 2013).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길러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Keller et al., 2010), 동양에서는 권위있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Shin & Wong, 2013). 일부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거나 지나치게 밀착된 양육을 하기도 한다(천희영, 1998; Goyette & Xie, 1999). 무엇보다,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밝힌 연구(김의철, 박영

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6)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희생에 대한 자각이었다. 부모의 희생을 인식하는 것은 부모를 신뢰함에 있어 혈연관계라는 점, 부모가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이거나 성품 측면에서 존경할 만하다는 점, 지도나 조언을 해주고 자신을 믿어준다는 점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한국 문화에서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한 부모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에서 도출되었던 개념인 희생 관련 문항이 Coulson 등(2012b)의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소명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질적연구에서 도출되었던 ‘희생’이라는 주제는 사라지고 ‘정체성(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과 ‘의미있는 공헌(예: 내 자녀는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이다)’, ‘운명(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등 3개 주제에 해당되는 문항이 ‘삶의 목적’ 요인으로 도출된 바 있다. 또한 ‘열정’과 ‘항상 생각함’ 주제는 ‘열정’, ‘인식’이라는 요인으로 각각 도출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국 문화의 특수성, 한국 부모의 특징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동일한 요인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 및 문화차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소명 척도에 포함될 수 있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구조를 재검증하여 한국 부모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소명 연구를 활성화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소명 수준이 높다는

것이 부모의 삶과 양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선행연구(Coulson et al., 2012b)에서는 부모소명이 다른 부모됨, 양육관련 변인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부모소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부모소명이 삶 만족이나 긍정적인 양육 관련 변인들과 정적상관이 있으나, 그 관계의 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부모소명이 이들 변인과는 구별되는 변별타당도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통계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소명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적 탐색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소명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어온 삶 만족, 행복, 삶의 의미 등의 변인과 소명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 자녀가치, 육아 및 일상생활 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1에서 예비 문항을 개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 후,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최종 문항 및 요인구조를 확정하고 상관분석, 법칙적 망조직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부모소명 개념을 소개함과 동시에 소명과 양육에 대해 확장된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양육은 직업을 갖는 것 혹은 직업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른 활동으로 여겨져왔으나, 양육 영역에서도 소명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양육 및 부모됨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모소명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 단계로 이 개념이 갖는 고유한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Coulson과 동료들(2013)는 부모소명이 부모로서의 자신을 자기 삶, 정체성의 중심에 두고 부모역할이 자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성찰하며, 단순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변인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했으나, 다양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부모소명 개념의 정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다양한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부모소명이 갖는 고유한 속성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명을 양육의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양육이 갖는 의미를 재평가하고 건강한 부모됨과 부모-자녀 관계, 양육태도에 대한 후속연구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에서 부모소명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소명 척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타당도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3.** 부모소명은 심리적 건강, 부모로서의 태도, 양육관련 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부모소명의 주제 및 한국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문항양호도 검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비요인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 4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설문 대상은 아버지 231명(48.2%), 어머니 248명(51.8%)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평균 42.65세로 만 22세에서 만 59세까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SD=9.70$ ).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자녀 수,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취업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대한 정보는 표 1에 제공하였다.

### 연구도구

#### 한국형 부모소명 예비척도

한국형 부모소명 예비척도는 Coulson과 동료들이(2012b) 개발한 부모소명 척도(SSCCS)에 심리학과 교수 3인, 석·박사·통합 과정의 대학원생 7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개발한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새롭게 추가되는 문항에는 부모소명에 대한 질적연구 결과(Coulson et al., 2012a)와 한국의 문화 및 양육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질적연구에서는 의미있는 주제로 도출되었으나 최종 척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주제(희생)와, 다른 주제들과 통합되어 나타난 주제(정체성, 의미있는 공헌, 운명)를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 부모가 가진 강한 책임 및 헌신, 성공에 대한 신념 등을 반영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Coulson 등(2012a)의 질적연구에 제시된 인터뷰 내용에서 문항을 추출하였고, 국내외의 부모됨, 양육 관련 척도 문항을 검토하여 관련 문항을 선별하고 이를 연구팀이 수정하였다. 그 결과, 원척도 11문항에 합

의 과정과 내용 타당도 확인을 거친 새로운 15문항을 추가하여 총 26개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부모소명 원척도 11문항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2인이 번역과 역번역을 실시했고, 이후 연구팀 10인의 동일성 평정을 거쳤다(10점 척도, 총 평균=9.75,  $SD = 0.24$ ).

예비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수준까지 평정하도록 제작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소명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ewha-202011-0012-01)을 얻은 뒤, 데이터 수집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설명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데이터 업체를 통해 참여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

### 자료분석

한국형 부모소명 예비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분석은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분석 결과와 상관분석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구조 확인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고유치와 누적분산비율, 스크리도표, 그리고 문항의 공통성 및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축요인추출, 그리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는 사각회

표 1.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479)

대상자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31	48.2	자녀 연령 (첫째 자녀 만 나이)	0-6세	169	35.3	
	여	248	51.8		7-12세	95	19.8	
연령	20-24세	5	1.0		13-18세	70	14.6	
	25-29세	57	11.9		19-28세	104	21.7	
	30-34세	45	9.4		29-35세	41	8.6	
	35-39세	84	17.5		교육수준	중졸	5	1.0
	40-44세	85	17.7			고졸	92	19.2
	45-49세	55	11.5			대졸	323	67.4
	50-54세	89	18.6	대학원졸		56	11.7	
	55-60세	59	12.3	기타		3	0.6	
자녀 수	1명	199	41.5	맞벌이 여부	그렇다	210	43.8	
	2명	240	50.1		아니다	269	56.2	
	3명	34	7.1	취업 여부	부	228	98.7	
	4명	6	1.3		모	100	40.3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284	59.3	월수입	100만원 미만	3	0.6	
	충청·대전·세종	42	8.8		100-300만원 미만	70	14.6	
	전라·광주	45	9.4		300-500만원 미만	199	41.6	
	경상·대구·울산·부산	91	19.0		500-700만원 미만	120	25.1	
	강원	13	2.8		700-900만원 미만	50	10.4	
	제주	4	0.8		900만원 이상	37	7.7	

전의 일종인 프로맥스(promax)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Hendrickson과 White(1964)의 제안에 따라 요인 간 상관을 허락하는 정도인 kappa 지수는 4로 지정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 척도와 요인별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여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에는 SPSS 25.0을 사용하였다.

### 문항분석

극단값을 갖거나(예: 천장효과) 변별력이 없는 문항을 가려내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형 부모소명 예비척도 문항들 평균의 최소값은 3.02, 최대값은 4.19로 나타나 척도가 5점 Likert 방식으로 평정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에 극단값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각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는 0.45에서 0.70으로 적절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별로 내적합치도를 확

## 결 과

인한 결과, 문항 제거 시 내적합치도가 상승하는 문항이 없었으므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Kline(2011)이 정규성 가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7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역시 모든 문항이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에 26개의 예비문항들을 모두 사용하였다.

###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 지수를 확인하고 Bartlett 검증을 실시하였다(Cerny & Kaiser, 1977). 분석 결과, 26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의 표본 적절성 측정치인 KMO 지수는 1에 가까운 0.947로 나타나 0.8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넉넉히 충족시켰다. Bartlett 구형성 검증 통계치의 산출 결과 역시 요인구조

가 없다고 가정하는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므로( $\chi^2 = 6243.33, df=325, p<.001$ ), 수집된 자료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요인의 수를 고정하지 않고 고유값 1.0 이상에서 요인의 개수를 탐색해 본 결과, 요인은 4개로 제안되었다. 이는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치가 평균화에 이르기 직전인 지점을 고려하며(이순목 등, 2016), 결정된 요인 수로 설명하는 분산 비율(58.48%)이 전체 설명량의 최소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부합한 결과이다(Merenda, 1997).

다음으로, 4요인 구조를 기반으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해당요인을 적절히 측정하는 문항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의 값을 가지며 다른 요인에는 0.3 이상 중복하여 적재되지 않고 교차 요인부하량이 0.1 이상 차이가 나는 문항(Floyd & Widaman, 1995),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로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공통성 값이 0.4를 넘는 문항으로 선별하였다. 4요

표 2.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요인계수 행렬 (N=479)

요인	문항번호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성
			1	2	3	4	
목적/ 정체성	ORG2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당연한/타고난 목적이다.	.79	.14	.01	-.17	.65
	ORG3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74	.17	-.08	-.05	.61
	ORG5	엄마/아빠로서의 내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	.74	.11	-.19	.15	.60
	ORG4	내 자녀는 세상에 대한 나의 기여이다.	.72	.00	.04	-.04	.53
	NEW14*	내 자녀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를 보여준다.	.70	-.22	.18	.00	.49
열정/ 성장	ORG1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51	.24	.04	-.02	.49
	NEW7	자녀 양육을 통해 나의 삶이 더 풍성해졌다.	.12	.73	-.09	-.06	.52
	NEW8	부모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03	.71	-.03	.03	.52
	ORG10	나는 엄마/아빠로 사는 것에 열정적이다.	.20	.58	.03	.04	.59
	NEW6	부모로 사는 것은 나를 많이 성장시킨다.	-.17	.57	.20	.08	.43
	ORG11	나는 나의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기대된다.	.00	.52	.12	.17	.51



표 2.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요인계수 행렬 (N=479) (계속)

요인	문항번호	문항	요인부하량				공통성
			1	2	3	4	
	NEW3	나는 자녀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03	.11	.74	-.05	.58
	NEW1	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09	.15	.70	-.10	.46
희생/ 헌신	NEW13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소명이다.	.14	-.10	.66	-.03	.47
	NEW2	나는 자녀에게 헌신적이다.	.00	.29	.65	-.21	.52
	NEW5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다.	-.04	.18	.55	.13	.55
의식/ 집중	ORG8	나는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때도 아이를 생각한다.	-.10	.01	-.03	.89	.68
	ORG7	나는 내 아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06	.07	-.01	.79	.63
	NEW15	나는 자녀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18	.06	.09	.50	.51
Cronbach's alpha			.87	.83	.83	.80	.94(전체)
Eigenvalues (요인의 개수에 따라)			10.43	2.04	1.51	1.22	
% of Variance (요인의 개수에 따라)			40.13	7.84	5.82	4.69	
% of Total Variance (요인의 개수에 따라)			40.13	47.97	53.79	58.48	

주. NEW14\* 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으므로 최종문항으로 선정되지 않음.

인의 패턴행렬 결과는 표 2와 같이 명확한 요인구조를 나타내었고, 전체 변량의 58.48%가 설명되었다(표 2 참조).

각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요인은 부모가 되는 것을 당연한 목적, 이유, 정체성 부모의 소명을 부여받은 정체성이자 이 땅에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목적/정체성'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자녀를 기르며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의미를 반영하고 있어 '열정/성장'이라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부모가 양육에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계속 노력함을 반영하고 있어 '희생/헌신'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항상 자녀에 대한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의식/집중'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80에서 .87이었고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

도는 .94로 나타났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개발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요인 적합성과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와 유사한 이론적 근거로 이루어진 다른 심리 측정 척도와 의 관계가 예상한 바와 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척도의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관분석과 법칙적 망조직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에는 SPSS 25.0과 Mplus 7.0이 사용되었다.

## 방 법

### 연구대상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하나 이상 둔 60세 미만의 부와 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버지 318명(50.6%), 어머니 310명(49.4%)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부와 모 간에는, 부모소명 변인의 하위요인인 ‘목적/정체성’( $t=2.389$ ,  $df=626$ ,  $p < .05$ ) 영역의 수준에서 아버지가 유의하게 더 높

았고, ‘의식/집중’( $t=-2.910$ ,  $df=626$ ,  $p < .01$ ) 영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두 하위요인인 열정/성장( $t=-1.261$ ,  $df=626$ ,  $p=ns$ )과 희생/헌신( $t=-.437$ ,  $df=626$ ,  $p=ns$ ) 그리고 전체 평균( $t=-.178$ ,  $df=626$ ,  $p=ns$ )에서는 부와 모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성별의 구별 없이 부모소명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부모의 평균연령은 46.03세( $SD=7.17$ )로, 연구에 필요한 주요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3에 정리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참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28)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대상자 특성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남	318	50.6	자녀연령 (첫째 자녀 만 나이)	0-6세	110	17.5
	여	310	49.4		7-12세	138	21.9
연령	25-29세	6	1.0		13-18세	162	25.8
	30-34세	37	5.9		19-28세	202	32.2
	35-39세	97	15.5		29-35세	16	2.7
	40-44세	114	18.2		중졸	1	0.2
	45-49세	90	14.3		고졸	88	14
	50-54세	230	36.7		교육수준	대졸	459
55-60세	54	8.7	대학원졸		78	12.4	
자녀 수	1명	207	33.0		기타	2	0.3
	2명	345	54.9	그렇다	329	52.4	
	3명	65	10.4	맞벌이 여부	아니다	296	47.1
	4명	10	1.6	무응답	3	0.5	
	5명 이상	1	0.2	취업여부	그렇다 (부)	309	97.2
거주지역	서울·경기·인천	397	63.2	그렇다 (모)	179	57.7	
	충청·대전·세종	47	7.5	100만원 미만	3	0.5	
	전라·광주	41	6.5	100-300만원 미만	69	11	
	경상·대구·울산·부산	136	21.7	300-500만원 미만	235	37.4	
	강원	6	1.0	500-700만원 미만	168	26.8	
	제주	1	0.2	700-900만원 미만	92	14.7	
				900만원 이상	61	9.7	
				월수입			

된 바와 같다.

## 연구도구

### 부모소명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19문항으로 제안되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로딩값이 낮은 1문항이 삭제되어 타당도 분석에는 최종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적/정체성 5문항(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나의 운명이다.”), 열정/성장 5문항(예: “부모로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희생/헌신 5문항(예: “나는 자녀에게 헌신적이다.”), 의식/집중 3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의 네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소명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목적/정체성 .86, 열정/성장 .85, 희생/헌신 .82, 의식/집중 .74, 그리고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 직업 소명의식

직업 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Dik과 동료들(2008)이 개발하고 Shim과 Yoo(2012)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4문항(예: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목적/의미-존재 4문항(예: “나의 일은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친사회적 지향-존재 4문항(예: “내 진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돕는 역할에 있다.”)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전적으로 해당된다)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직업소명은 부모소명과 소명이라는 개념을 공유하지만 직업과 양육이라는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법칙적 망조직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각 하위 유형별 .62 ~ .84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고, 전체 문항은 .89로 나타났다.

### 행복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삶 만족 3문항(예: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다.”), 긍정 정서 3문항(예: “즐거운”), 부정 정서 3문항(예: “짜증나는”)으로 구성된 총 9문항의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삶 만족 점수와 긍정 정서 점수를 합한 후에 부정 정서의 점수를 빼 값으로 행복감을 측정하며, 따라서 높은 점수는 행복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하위요인 .86~.90, 전체 .94로 나타났다.

###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Diener와 동료들(1985)이 개발, 조명환과 차경호(1998)가 번안하고 임영진(2012)이 타당화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개인이 현재 보고하는 삶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3문항(예: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과 과거의 삶 만족 수준을 측정하는 2문항(예: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7점 Likert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으면 삶 만족

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이었다.

###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와 동료들(2006)이 개발하고 원두리와 동료들(2005)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의미 발견(예: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5문항, 의미 추구(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1점=매우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높은 점수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의미발견 .87, 의미추구 .91였고, 문항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과 Wandersmann(1978)이 개발, 신숙재(1997)가 번안한 문항들을 오미연(2005)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5점 Likert, 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 해당 척도는 유능감 9문항(예: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불안감 4문항(예: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기타 3문항(예: “나의 주된 관심은 자녀 양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등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능감, 불안감, 기타의 하위요인들을 같은 차원으로 보기 어려워 따로 쓰인 선행연구(예: 기쁘다, 2018; 이영환, 오미연, 2006)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는 유능감 9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능감

요인의 Cronbach's 는 .87이었다.

### 양육 행동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kinner와 동료들(2005)이 개발한 양육 행동 척도를 정교영과 신희천(201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온정 5문항, 거부 5문항, 구조 2문항, 혼란 4문항, 자율성지지 2문항, 강제 5문항의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정, 구조, 자율성지지의 총 평균을 긍정적인 양육 행동으로, 거부, 혼란, 강제의 총 평균을 부정적 양육 행동의 점수로 사용한다(4점 Likert, 1=전혀 그렇지 않다, 4=아주 그렇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양육 행동 9문항(예: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의 Cronbach's 는 .73이었고, 부정적인 양육 행동 14문항(예: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의 Cronbach's 는 .88로 나타났다.

###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최은정(20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6문항(예: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7문항(예: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부모의 고통 9문항(예: “아이를 돌보면서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일상적 스트레스 .82, 부담감 .81, 부모의 고통 .80, 전체는 .92로 나타났다.

### 일상생활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2011년 서울시 정신보건 인식조사의 내용을 여성가족패널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예: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는 .74이다.

### 자녀 가치

자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이삼식과 동료들(2005)이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정서적 가치 5문항(예: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도구적 가치 4문항(예: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적 가치 문항만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서적 가치가 부모소명과 의미적으로 유사성을 공유하는 데 비해, 도구적 가치는 관습적이고 사회, 경제적 호혜성을 전제로 자녀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부모소명과 차별성을 갖기에 법칙적 망조직 분석에 적합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적 자녀가치의 Cronbach's 는 .81이었다.

### 부모 자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Guidubaldi와 Cleminshaw(1985)의 척도를 현온강과 조복희

(1994)가 한국 부모들에게 적합하게 수정한 척도 중 자녀-부모 관계(child-parent relationship) 영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10문항(예: “아이들은 나를 좋은 부모로 여기는 것 같다.”)의 5점 Likert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자녀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1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2 역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ewha-202011-0012-01)을 얻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자료수집은 데이터 수집 업체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 1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은 연구 2의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료분석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구인타당도, 즉 표준화 요인 부하 추정치를 이용한 수렴 타당도와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한 변별타당도를 함께 관찰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됨, 부모역할, 양육태도 및 적응 관련 변인들과 부모소명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개발된 척도와 부모됨 관련 척도들이 삶의 결과 변인들(예: 행복, 삶 만족 등)과 갖는 관련성이 유사하다면 준거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존의 부모소명 척도(SSCCS)의 모태가 된 직업소명 척도를 준거로 삼고, 새로 개발된 부모소명 척도와 삶의

결과 변인들을 함께 법칙적 망조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직업소명 외에, 자녀가치 중 도구적 가치를 준거 변인으로 둔 법칙적 망조직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은 경험적으로 관련성이 밝혀진 요인들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검증하는 방법인데(Cronbach & Meehl, 1955), 이를 통해 두 척도가 반영하고 있는 소명의식의 차원이 얼마나 유사하게 수렴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변별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 및 준거타당도를 종합적으로 한눈에 확인하는 동시에 단순히 관련성을 넘어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타당도 검증 방법이다.

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부모소명 원척도(SSCCS)와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K-SSCCS)의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소명 원척도에 비교하여서도 새로운 문항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다면 척도 개발의 타당성과 증분타당도를 확보하게 된다.

## 결 과

###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요인구조가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제시된 4요인 구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의 모형 검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EFA 결과에서는 포함되었던 NEW14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44로 나타나 유일하게 요인부하량 0.50을 넘지 못하여 NEW14 문항을 삭제하고 4개 요인, 총 18문항의 최종 도구를 확정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는 평가 지수인 <sup>2</sup> 검정이 기각되지 않고(Kline, 2011), TLI (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가 0.90 이상인 경우(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이 0.08 이하일 때(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일반적으로 괜찮은 적합도로 판단한다.

최종 18문항의 CFA 모형적합도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sup>2</sup>은 기각되었으나(<sup>2</sup> = 462.98, *df* = 129, *p* < .001), 표본 크기의 영향을 보다 적게 받는 근사적합도의 지수들이 CFI = .938, TLI = .927, SRMR = .050, 그리고 RMSEA는 .064(90% CI = .058-.071)로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으므로 4요인 구조가 적합한 모형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EFA에서 제안된 4요인 구조 적합성이 새로운 표집 대상에게서도 재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하위요인에 대한 관찰변수의 요인부하량이 0.57에서 0.83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에 나타난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0.51에서 0.82로써 Kline(2011)이 요인간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

모형	$\chi^2$	<i>df</i>	<i>p</i>	CFI	TLI	SRMR	RMSEA (90%신뢰구간)
연구모형	462.98	129	.00	.938	.927	.050	.064 (.058-.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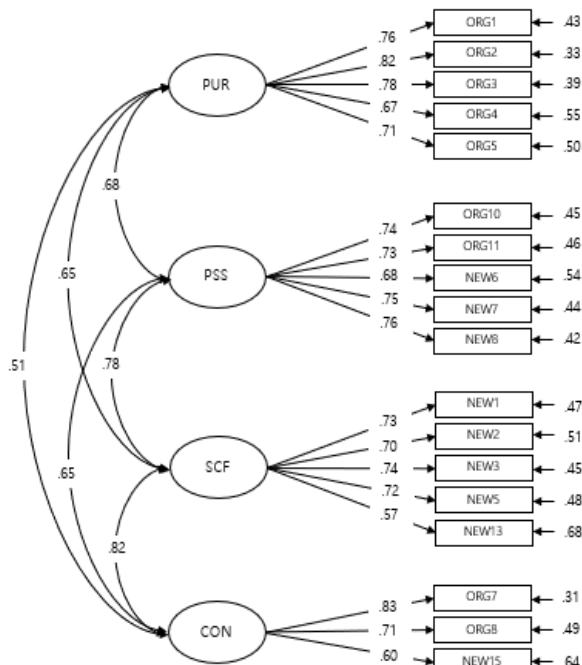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구조 모형과 표준화계수  
 주. PUR: 목적/정체성, PSS: 열정/성장, SCF: 희생/헌신, CON: 의식/집중

변별타당도를 확인하는 값으로 제안한 0.90 미만의 기준을 만족하였다(그림 1 참고).

###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는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가 다른 준거 변수와 얼마나 상응하느냐의 정도를 상관계수로 나타내므로,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와 관련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소명 원칙도(SSCCS)의 밑바탕이 되었던 직업 소명의식(Dik et al., 2012)을 포함하였고, 자녀를 기르며 양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양육효능감과 실제로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의 질을 반영하는 양

육행동, 그리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르며 맞닥뜨리게 되는 양육스트레스 변인도 추가하였다. 부모소명 원칙도(SSCCS)의 타당화 작업에서와 마찬가지로(Coulson et al., 2012b), 개발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역시 삶의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행복감과 삶 만족도를 예측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일상적 스트레스 등은 완충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과의 상관관계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척도가 이미 널리 쓰이는 기존의 부모됨 관련 변인들과 삶의 결과 변인들에 대해 같은 방향성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소명 전체의 평균 및 하위요인들은 직업소명과 행복감, 삶 만족도, 삶의 의미와 양육효능감(유능감) 및 긍정적 양육 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 = .10 \sim .86, p < .05$ ), 부정적 양육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그리고 일상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 $r = -.09 \sim -.48, p < .01$ )을 나타내었다. 다만 부모소명의 의식/집중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및 일상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소명의 원칙도 역시 부정적인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고 특히 인식(awareness) 영역이 웰빙과 상관적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맥락이다(Coulson et al., 2012b). 사용된 변인들의 기초통계 분석과 구체적인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 법칙적 망조직

다음으로는 법칙적 망조직(Nomological network)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어떤 구인 간의 관계 맺는 방식들의 유사성이 연구자가 설정하고 예측하는 방식과 일치한다면 구인타당도가 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Allen &

표 5.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부모소명	-													
2 목적/정체성	.84**	-												
3 열정/성장	.85**	.59**	-											
4 희생/헌신	.86**	.57**	.65**	-										
5 의식/집중	.75**	.46**	.56**	.65**	-									
6 직업소명의식	.40**	.43**	.32**	.31**	.18*	-								
7 행복	.29**	.22**	.38**	.21**	.10*	.38**	-							
8 삶의 만족도	.31**	.24**	.41**	.21**	.14**	.43**	.79**	-						
9 삶의 의미	.43**	.34**	.47**	.35**	.21**	.54**	.42**	.47**	-					
10 양육효능감	.40**	.26**	.50**	.36**	.20**	.43**	.54**	.55**	.52**	-				
11 긍정적 양육행동	.44**	.24**	.50**	.43**	.34**	.37**	.33**	.36**	.44**	.56**	-			
12 부정적 양육행동	-.33**	-.14**	-.48**	-.33**	-.16**	-.12**	-.42**	-.33**	-.36**	-.59**	-.41**	-		
13 양육 스트레스	-.25**	-.18**	-.40**	-.17**	-.03	-.16**	-.47**	-.41**	-.38**	-.52**	-.29**	-.61**	-	
14 일상 스트레스	-.18**	-.09**	-.30**	-.14**	-.01	-.22**	-.63**	-.53**	-.37**	-.53**	-.28**	-.56**	-.58**	-
평균	3.66	3.31	3.82	3.73	3.86	2.41	5.60	3.93	4.80	3.22	2.81	2.11	3.02	2.47
표준편차	.57	.80	.69	.64	.61	.56	3.07	1.34	1.00	.48	.34	.45	.62	.47
왜도	-.36	-.34	-.56	-.61	-.47	-.10	-.38	-.10	-.46	.03	.16	-.06	-.14	-.03
첨도	1.15	.04	.37	1.59	1.02	-.29	-.21	-.77	.32	.02	.85	-.27	.04	.14

\*  $p < .05$ , \*\*  $p < .01$ .



Yen, 1979; Bollen, 1989) 법칙적 망조직 역시 구인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잘 알려진 척도를 근거로 다른 변인을 예측하고 설정하는 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거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 원척도 개발의 바탕이 되었던 직업소명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소명' 의식이 유사한 방식으로 행복과 삶 만족도, 일상 스트레스 등의 삶의 결과 변인들을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명의식과 삶의 의미의 관련성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Duffy & Sedlacek, 2010; Duffy et al., 2013), 삶의 의미로부터 부모소명과 직업소명이 예측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검증에는 삶의 지표들에 대한 두 척도의 예측력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검증하기 위하여 참여 인원 628명 중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488명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지표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측정오차가 과대추정되어 추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Little과 동료들(2013)의 지적을 근거로, 문항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문항 묶음을 만들어 지표변수로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이 있는 척도는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 묶음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척도는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가장 적절한 개수라고 알려진 3개의 문항 묶음을 만들어 사용하였다(Matsunaga, 2008).

그 결과 부모소명과 직업소명이 구성한 법칙적 망조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 .073, CFI = .939, TLI = .927로 나타났고 SRMR = .065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 지수였으므로(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두 척도로 이루어진 법칙적 망조직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모소명( = .57,  $p < .001$ )과 직업소명( = .69,  $p < .001$ )은 모두 삶의 의미로부터 정적으로 예측되었으며 행복감( = .21, = .35,  $p < .001$ )과 삶 만족도( = .20, = .40,  $p < .001$ )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부모소명( = -.22,  $p < .001$ )과 직업소명( = -.21,  $p < .01$ ) 변인 모두 일상 스트레스 수준은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므로 부모소명 척도가 기존의 직업소명 척도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며 일상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동일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법칙적 망조직을 통해 부모소명이 갖는 '소명'이라는 속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소명과 비교하였다면, 부모소명 척도가 갖는 '부모됨'에 대한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가치 변인 중 도구적 가치와 비교하였다. 도구적 자녀가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부모소명과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부모-자녀 간 관계를 관습적이고 상호적 호혜성에 근거해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이질적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은 긍정적인 삶의 결과들과 연결되어 있으며(Bellah et al., 1985), 일터뿐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만족도와 삶의 의미, 낙관적 태도 등과 일관적으로 정적인 관계에 있음이 밝혀져 이는 자녀를 기르는 데에서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Coulson et al., 2012b), 도구적 자녀가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난다(임현주 등, 2012; 권미경, 2011).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도구적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하는가에 따라 부모 역할 인식이 다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 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이나 스트레스 정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송영주 등,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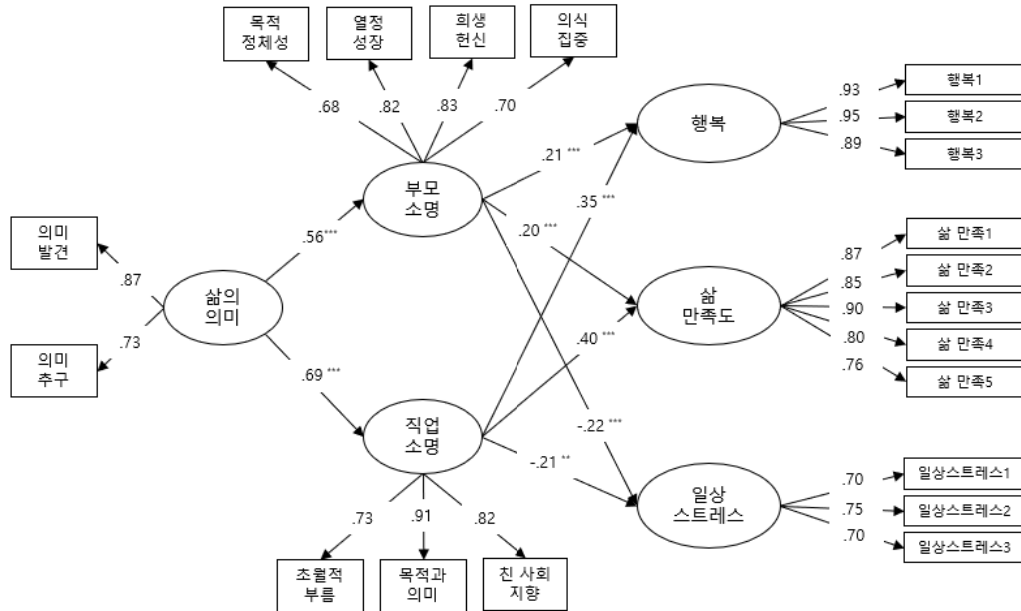


그림 2. 법칙적 망조직: 부모소명과 직업소명의 비교(N=488)

부모소명과 도구적 가치는 결과 변인을 예측함에 있어 다소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모형 분석 결과, 부모소명과 도구적 자녀가치가 구한 법칙적 망조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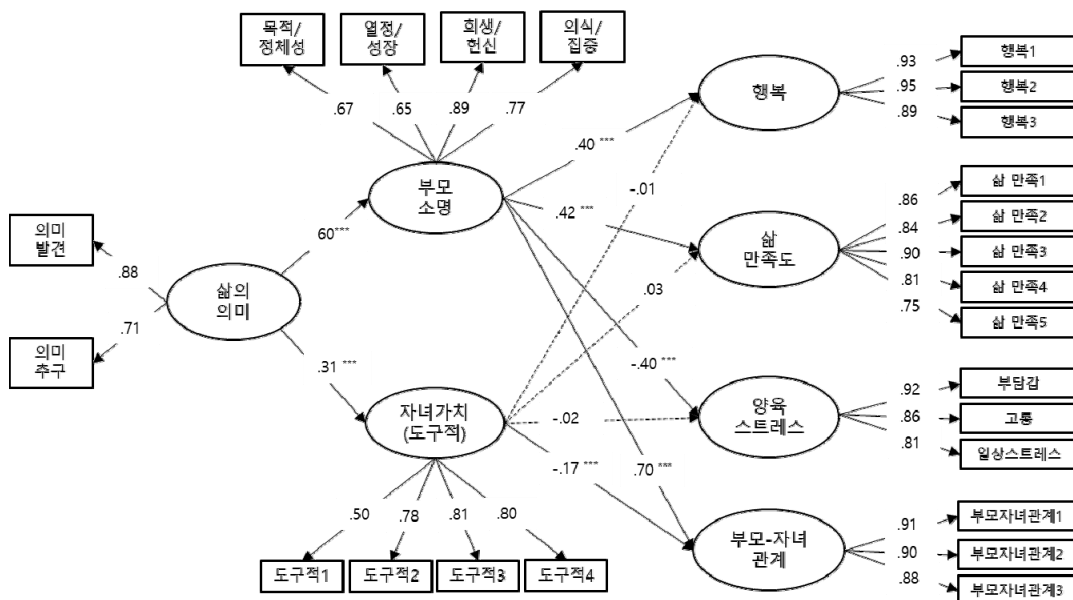


그림 3. 법칙적 망조직: 부모소명과 도구적 자녀가치의 비교(N=628)

= .076, CFI = .923, TLI = .910로 나타났고 SRMR = .089로 나타나 모두 수용 가능한 적합도 지수였으므로(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2; Hu & Bentler, 1999) 이 역시 두 척도로 이루어진 법칙적 망조직의 분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모소명( = .60,  $p < .001$ )과 도구적 자녀 가치( = .31,  $p < .001$ )는 모두 삶의 의미로부터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되었으나, 부모소명만이 행복( = .40,  $p < .001$ )과 삶 만족도( = .42,  $p < .001$ ), 양육 스트레스( = -.40,  $p < .001$ )를 예측하였고 도구적 자녀가치는 아무런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또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에는 부모소명이 높은 예측력( = .70,  $p < .001$ )을 보이는 데 반해 도구적 자녀가치는 유의미한 부적 예측력( = -.17,  $p < .001$ )을 가진다는 점도 두 척도가 매우 구별되는 점이다. 두 법칙적 망조직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는 '소명'이 갖는 삶에 대한 예측력은 유사하게 지니되, 부모가 갖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는 도구적 자녀가치와는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증분타당도

부모소명은 양육의 기쁨과 보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Coulson et al., 2012b), 새롭게 개발된 한국형 부모소명이 대한민국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한 증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 변인인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자녀 수와 첫째 자녀 연령 및 맞벌이 여부와 월 평균 수입, 그리고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1단계에서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2

단계에는 부모소명 원척도(SSCCS)를 투입하고, 3 단계에서는 부모소명 원척도의 문항을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한국형의 새로운 문항들만 투입하였다.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부모소명 원척도와 추가 문항의 분산팽창지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는 각각 3.052와 3.079로 10 미만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써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가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기존 척도가 갖지 못한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단계에서는 부모소명 원척도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비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 R^2 = 0.17$ ,  $\beta = .42$ ,  $p < 0.001$ ), 3단계의 새로운 문항들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1, 2 단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된 설명력( $\Delta R^2 = 0.11$ ,  $\beta = .66$ ,  $p < 0.001$ )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새로운 문항들을 2단계에 넣고 부모소명 원척도를 3단계에 투입하여, 새로운 문항들의 설명력을 제외하고도 원척도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지 확인한 반대의 경우에는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Delta R^2 = 0.001$ ,  $\beta = -.06$ ,  $p = ns$ )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증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증분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구체적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고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 부모소명이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연구문제 1).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부모소명

표 6.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부모소명 원칙도와 새로 추가된 문항과의 비교

단계모형	독립변인	B	SE	$\beta$	R <sup>2</sup>	$\Delta R^2$
1단계	성별	.08	.05	.07	.03	.03*
	연령	-.01	.01	-.11		
	자녀 수	-.01	.04	-.01		
	첫째 자녀 연령	.00	.01	-.01		
	맞벌이 여부	.01	.05	.00		
	월평균 수입	.03**	.01	.12		
	교육 수준	.02	.05	.02		
2단계	성별	.08	.05	.06	.20	.17***
	연령	-.01*	.01	-.15		
	자녀 수	-.01	.04	-.01		
	첫째 자녀 연령	.00	.01	.02		
	맞벌이 여부	.00	.05	.00		
	월평균 수입	.03*	.01	.10		
	교육 수준	.02	.05	.02		
	부모소명 원칙도	.43***	.04	.42		
3단계	성별	.04	.05	.03	.31	.11***
	연령	-.02**	.01	-.18		
	자녀 수	.00	.03	.00		
	첫째 자녀 연령	.01	.01	.06		
	맞벌이 여부	.01	.05	.06		
	월평균 수입	.02	.01	.07		
	교육 수준	.02	.04	.02		
	부모소명 원칙도	-.06	.06	-.06		
	새롭게 추가된 9문항	.66***	.07	.58		

\*  $p < .05$ , \*\*  $p < .01$ , \*\*\*  $p < .001$ .

의 정의 및 구성개념을 살펴보고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예비문항에는 Coulson과 동료들(2012b)이 개발한 부모소명 척도(SSCCS)의 11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Coulson과

동료들(2012a)의 부모소명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인 희생, 의미있는 공헌(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기여, 부모로서의 성장)과 관련된 개념을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서구문화와 한국

의 문화 차이를 감안하여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렇게 원척도 11문항에 새로 선별 및 개발된 15문항을 추가하여 총 26문항의 예비문항이 구성되었다. 이후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4개 요인 19문항을 도출하였고,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4개 요인 18문항을 확정하였다. 한국형 부모소명은 기존 부모소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희생/헌신이라는 새로운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그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부모소명 척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타당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 2). 확정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을 근거로 한 준거타당도, 법칙적 망조직을 활용한 구인 및 준거타당도, 증분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부모소명척도는 직업소명, 행복, 삶 만족도,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 스트레스, 일상 스트레스와 같은 부모소명 관련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는 직업소명, 행복,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 긍정적 양육 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부정적 양육 행동, 양육스트레스, 일상 스트레스와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부모소명은 심리적 건강, 부모로서의 태도, 양육관련 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3). 구체적으로, 부모소명과 직업소명을 비교하는 법칙적 망조직과 부모소명과 도구적 자녀가치를 비교하는 법칙적 망조직을 통하여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구인 및 준거타당도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소명

과 직업소명을 비교하는 법칙적 망조직 모형에서 삶의 의미는 부모소명과 직업소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소명과 직업소명 모두 행복, 삶 만족, 일상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직업소명과 부모소명이 소명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두 변인 모두 행복, 삶 만족, 일상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으로써 소명이 직업영역 외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 모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직업소명과 부모소명 모두 일상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aumeister, 1991; Seligman, 2002). 그러나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에 앞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소명이라는 개념이 신념, 몰입, 열정, 의미추구 등의 긍정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며(Coulson, 2011) 개인의 수행과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소명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부정적 양상(dark side)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Bunderson & Thompson, 2009). 예를 들어, 직업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진로에 대해 '터널시야'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조언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Dobrow, 2006),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수행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관계갈등 및 소진을 경험할 가능성도 존재했다(Vinje & Mittelmark, 2007).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과 직업소명 모두가 일상 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예측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평균적인 경향성을 확인한 것이므로 과도하게 높은 소명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부모소명과 도구적 자녀가치를 비교하는 법칙적 망조직 모형에서 부모소명은 행복, 삶의 만

족도,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관계에 모두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인 반면, 도구적 자녀가치는 부모-자녀관계만 예측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구적 자녀가치의 첫 번째 문항(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의 요인부하량이 .50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적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도구적 자녀가치는 자녀의 가치를 사회경제적 호혜성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을 특별한 사명이자 자신의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소명과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도구적 자녀가치도 자녀의 가치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부모 삶의 건강과 적응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부모소명은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삶을 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소명이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갖는 중요한 개념임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가 부모-자녀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증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원척도(SSCCS) 문항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 새로 추가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K-SSCCS) 문항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각 단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유의하게 증가된 설명량을 확인함으로써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새로 개발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에는 희생과 헌신, 자녀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 등 자녀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문항

들도 포함되었다. 때문에 부모소명이 높은 것이 부모 자신에게는 의미있는 것일 수 있으나 자녀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소명이 부모-자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의미있는 기여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각만 측정하였으므로 부모소명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녀가 평가한 부모-자녀 관계 변인을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타당도가 확인된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는 목적/정체성, 열정/성장, 희생/헌신, 의식/집중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Coulson과 동료들(2012b)이 개발한 부모소명 척도(SSCCS)의 3요인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차별화된다. 우선, SSCCS 척도에는 삶의 목적(life purpose), 의식(awareness), 열정(passion)의 3요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은 각각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목적/정체성, 의식/집중, 열정/성장의 요인과 대응된다. 실제로, SSCCS에서 삶의 목적 요인에 해당된 문항들은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목적/정체성 요인에 포함되었으며, SSCCS의 열정 문항은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열정/성장 요인에, 의식 요인 문항은 의식/집중 요인에 포함되었다. 부모소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 및 정체성을 부모됨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에 대해서 늘 의식 혹은 생각하고 양육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몰입하며 열정을 보이고, 삶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점은 문화에 따른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희생/헌신 요인은 원척도에는 없었으나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에서 도출된 차별화된 요인이

다. 이 희생/헌신 관련 요인은 Coulson과 동료들이 진행했던 부모소명 질적연구(2012a)에서는 도출되었던 부모소명 구성 개념 주제 중 하나였으나,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과정에서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도출되지 못했던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 개발에서는 최종 4요인 중 하나로 도출되면서, 한국 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척도가 개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부모소명 개념의 문화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고, 부모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정교육'을 탓하기도 하며, 자녀의 성공 역시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시대가 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경제적 상황과 가치관 역시 변화하면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의 강도가 예전과 비교하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한국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4점 만점(4 = 매우 동의한다)에 평균 3.0점을 보이며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무경 등, 2016).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융합시켜 자녀의 성공에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밀착하여 양육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천희영, 1998; Goyette & Xie, 1999). 이렇게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에서 희생/헌신의 요인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본 척도가 한국 문화를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도구를 통해 한국 부모의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희생/헌신 요인이 원척도와 차별화

된 요인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의 나머지 요인들(목적/정체성, 열정/성장, 의식/집중)과 다른 방향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하위요인 간 상관은 모두 정적 상관으로 4개의 하위요인 모두 상위요인인 부모소명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헌신의 개념이 자신을 버린다는 속성과 맞물려 있어 간혹 부정적인 시각으로 묘사되나, 이는 희생/헌신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맹목적으로 희생/헌신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역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희생이나 헌신이 이런 면에서 다른 요인들과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에서 4개의 하위요인은 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소명이라는 상위개념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 척도는 각 하위요인의 점수를 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부모소명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 일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왔던 소명 연구를 양육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소명 연구자들이 소명 개념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Baumeister, 1991; Seligman, 2002), 그 주장이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지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기여한다. 한국 사회에서 양육의 영역은 직업의 영역에 비해 가치를 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맘충' 등의 표현은 전업주부를 비하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안타까운 시선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명의식을 단순히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닌 양육에 적용하여 그 관점을 확장시킴으로 전업주부, 양육, 혹은 부모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형 부모소명 척도에서 원척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생/헌신 개념이 도출되면서 한국 사회의 부모소명 개념을 밝혀냈다는 게 의의가 있다. 이는 서구문화에서 개발된 원척도와 유사성을 띠면서도 한국 특수성이 더해진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 및 문화에 적합한 부모소명 척도가 개발됨으로써 한국 부모의 태도나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소명은 긍정자원으로 기능하는 개념으로 소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모소명이 행복,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양육효능감, 긍정적 양육 행동과 같은 긍정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심리적 자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혹은 상담 프로그램에 부모소명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무경 등(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평가할 때 '경제력의 부족'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제공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이 많은데도, 이와 관련된 인식은 낮은 편이며 부모 역할에 있어서 경제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하여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기며, 이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다(문무경 등, 2016). 따라서 부모소명과 같은 부모의 심리적 자원을 증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다. 부모소명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부모소명이 높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부모 개인의 삶, 부모 역할 및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낸 한국형 부모소명 개념이 건강한 부모됨

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하고, 행복한 개인,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상담 및 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부모소명을 규명하고 그 하위요인 및 특성을 밝히는 최초의 탐색적 연구로 의의를 갖지만, 부모소명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소명이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여러 영역에 걸쳐 높은 소명을 가질 때, 소명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직업소명과 부모소명이 동시에 높은 경우, 양 영역에서 모두 열정과 헌신을 다하려는 경향 때문에 일-가정 갈등이나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소명이나 실질적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Bunderson & Thompson, 2009). 부모소명에서도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명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 아님을 감안할 때 개인 혹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소명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부모소명 개념이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의미의 부모소명이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참고문헌

- 권미경 (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 기쁘다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31-52.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길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 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 김두섭, 창승은, 송유진, 천희란, 김정석 (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희, 김신정 (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1), 79-89.
- 김한곤 (2014).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959-972.
- 김혜라 (2011). 어머니 특성과 어머니의 자아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제 1회 한국 아동패널 학술대회, 263-278.
- 남정은, 정정희 (2012).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분석 - 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1), 109-124.
- 박영신, 김의철 (2006). 청소년기 신뢰의식의 형성과 집단별 차이 비교: 인간관계 신뢰에서의 토착심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85-127.
-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1.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아동학회지**, 35(5), 15-35.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미연 (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 비교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25.
- 유안진, 김연진 (1997). **부모교육**. 동문사.
- 윤미라 (2006). **고등학생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심리적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연구보고서 2005-3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영환, 오미연 (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 임영진 (2012).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77-896.
- 임현주, 최항준, 이대균 (2012).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신 출산 정서와 부모됨의 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한국 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32**(3), 225-244.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 (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조명한,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집문당.
- 천희영 (1998). 권위적 부모역할 수행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최선의 양육방법인가?: 서구와 아시아 문화 및 사회적 행동에 따른 재고.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8), 21-37.
- 최은정 (2020). **어머니의 역할지능과 자기분화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조복희 (1994).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Allen, M. J., & Yen, W. M. (1979). *Introduction to measurement theory*. Waveland Press.
- Aries, P. (2003). **아동의 탄생(L'enfant et la vie familiale sous l'Ancien Régime)**. 새물결.
-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The Guildford Press.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John Wiley & Sons.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Bunderson, J. S., & Thompson, J. A. (2009). The call of the wild: Zookeepers, callings, and the double-edged sword of deeply meaningful work.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4**(1), 32-57.
- Cerny, B. A., & Kaiser, H. F. (1977). A study of 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for factor-analytic correlation matric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1), 43-47.
- Coulson, J. C. (2011).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Ph.D. Thesis. University of Wollongong.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a). Parent's conception and experience of calling in child rearing: A qualitative analysi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52(2), 222-247.
- Coulson, J. C., Oades, L. G., & Stoyles, G. J. (2012b).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Measurement, development and initial finding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2), 83-94.
- Coulson, J. C., Stoyles, G. J. & Oades, L. G. (2013). Calling in childrearing: Promoting meaningful, purposeful living in family life. In J. D. Sinnott (Ed.), *Positive psychology: Advances in understanding adult motivation* (pp. 3-18). Springer.
- Cronbach, L. J., & Meehl, P. E. (1955). Construct validity in psychological tests. *Psychological Bulletin*, 52(4), 281-302.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August 6-9).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 [Paper presentation]. The 11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 Dik, B. J., & Shimizu, A. B. (2019). Multiple meanings of calling: Next steps for studying an evolving construc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7(2), 323-336.
- Dobrow, S. R. (2006). *Having a calling: A longitudinal study of young musici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Bott, E. M. (2013).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42-52.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Douglass, R. P. (2014). Living a calling and work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4), 605-615.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1), 27-41.
- Elangovan, A. R., Pinder, C. C., & McLean, M. (2010). Callings and organizational behaviou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76(3), 428-440.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August 28-September 1).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ation]. The 8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Goyette, K., & Xie, Y. (1999). Educational expectations of Asian American youths: Determinants and ethnic differences. *Sociology of Education*, 72(1), 22-36.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 (1985). The development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4(4), 293-298.
- Harzer, C. & Ruch, W. (2012). When the job is a calling: The role of applying one's signature strengths at work.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7(5), 362-371.
- Hendrickson, A. E., & White, P. O. (1964). Promax: A quick method for rotation to oblique simple structure. *British Journal of Statistical Psychology*, 17(1), 65-70.
- Hrdy, B. S. (2010). **어머니의 탄생- 모성, 여성 그리고 가족의 기원과 진화 (Mother nature)**. 사이언스북스.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Hummen, C. (2003). Interpers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woman. *Journal of Affect and Disorder*, 74(1), 49-57.
- Keller, H., Borke, J., Chaudhary, N., Lamm, B., & Kleis, A. (2010). Continuity in parenting strategies: A cross 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1(3), 391-409.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The Guilford Press.
-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300.
- Maslow, A.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D. Van Nostrand Company.
- Matsunaga, M. (2008). Item parceling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primer.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 24), 260-293.
- Merenda, P. (1997). A guide to the proper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conduct and reporting of research: Pitfalls to avoid.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30*(3), 156-164.
- Rogers, C. R. (1977). *On personal power*. Delacorte Press.
- Roskam, I. (2013). Culture and parenting: A review. In P. Barberis & S. Petrakis (Eds.), *Parenting: Challenges, practices, and cultural influences* (pp. 103-122). Nova Publishers.
- Rossi, A. S.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1), 26-39.
- Ryff, C. D., Lee, Y. H., Essex, M. J., & Schmutte, P. S. (1994). My children and me: Midlife evolutions of grown children and of self. *Psychological Aging, 9*(2), 195-205.
- Satir, V.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ur Books.
- Satir, V. (1976). *Making contact*. Celestial Art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Free Press.
- Shim, Y., & Yoo, S.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K).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4), 847-872.
- Shin, M., & Wong, Y. J. (2013). Beyond the tiger mom: Asian American parent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P. Barberis & S. Petrakis (Eds.), *Parenting: Challenges, practices, and cultural influences* (pp. 103-122). Nova Publishers.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Thompson, J. A., & Bunderson, J. S. (2019). Research on work as a calling... and how to make it matter.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6*, 421-443.
- Vinje, H. F., & Mittelmark, M. B. (2007). Job engagement's paradoxical role in nurse burnout. *Nursing & Health Sciences, 9*(2), 107-111.
- Weber, M. (1958).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Scribner.
- Wrzesniewski, A., McCauley, C., Rozin, P., & Schwartz, B. (1997). Jobs, careers, and callings: People's relations to their work.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1), 21-33.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K-SSCCS)

Suran Lee<sup>1</sup>      Youjin Bae<sup>2</sup>      Sujin Yang<sup>3</sup>      Ppudah Ki<sup>4</sup>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tudent<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sup>3</sup>

Division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sup>4</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Korean version of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K-SSCCS) in order to integrate cultural differences in parental roles and the meaning of parenthood. The study developed 26 preliminary items based on the original questions from the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Scale (SSCCS), the results from a qualitative study examining the concept of a life calling to raise children, and literature about Korean parents. In Study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 $N = 479$ ). The results showed 19 items representing four factors (purpose/identity, sacrifice/devotion, passion/growth, and awareness/focus). In Study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18 items with four factors ( $N = 628$ ). A validi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a nomological network, along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variables, confirmed that the K-SSCCS would be a reliable scale for measuring the strength of the calling to raise childre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Calling in Childrearing, Calling, Parenthood, Childrearing,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